오늘부터 전국서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점검 불응·방해 때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

환경부가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전국 차고지, 주차장, 도로 등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단속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지역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이다.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 4만4000여대가 단속 대상이다.

시·도는 240여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 중 대상 차량을 정차시켜 배출가스 측정 장비로 현장에서 검사한다. 경유차는 매연, 휘발유 및 가스차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측정한다. 매연 단속은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판정요원 3명이 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방식으로도 이뤄진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5곳, 울산시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중 총 6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를 이용해 단속한다.

단속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동호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동작대교 북단, 행주대교 북단, 행주IC, 울산 아산로 등이다.

운전자는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만 해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15일 이내 전문정비사업자나 자동차제작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선하지 않으면 10일 이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지고 불응 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일정과 지점을 미리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은 기준초과 차량을 선별해 개선하는 것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일 수 있다"며 "미세먼지는 기술과 정책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려면국민의 참여가 중요함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여성 2명 성폭행·살해 지적장애 30대 징역 40년

같은 마을에 사는 여성 2명을 상대로 성폭행과 살인 범죄를 저지른 지적장애 2급의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평생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박씨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단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으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9시께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 사이 전남의 한 지역 같은 마을에 사는 A(당시 76·여) 씨의 집 안방에서 A 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4년 6월 같은 마을 주민 B(당시 49·여) 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춘정 기자

봄나들이 인파 북적 15일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서 열린 '제7회 부산낙동강 유채꽃축제'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봄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해빙기 불시점검에 절반 적발

고용부, 건설현장 891개 점검 467개 사업주 사법처리

전국 건설현장의 절반가량이 해빙기 안전에 소홀하게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월 전국 891개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해빙기 불시감독'을 실시해 467개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 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설현장 불시감독은 지반의 약화로 인한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장비의 전도, 가설시설물 안전 등 해빙기에 취약한 공사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독결과 변형된 흙막이를 보수·보강하지 않거나 거푸집 동바리를 구조안전성 검토없이 임의로 설치해 사용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467개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 했다.

대표 사례로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A건설 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손상·변형된 흙막이를 보수·보강하지 않아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또 개구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해빙기 취약시설인 흙막이 설치가 불량해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149개 현장에 대해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노동자 안전보건교육·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710개 현장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2022년까지 사망재해 절반 감축을 위해서는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문화 정착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현장은 엄중 조치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수칙 준수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美 전시 도중 파손된 병마용 中에 반환

작년 12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전시 도중 손가락이 절단된 중국 병마용이 중국으로 반환된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중국 관영 광밍르바오 등에 따르면 이틀 전 산시성문물국은 파손된 병마용을 포함해 약 100점의 문물이 이달 초 반환됐다고 밝혔다.

문물국은 또 복구 방안을 마련했고,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12월 21일 필라델피아 프랭클린 인스티튜트 박물관에서 진나라 문물 특별 전시가 열린 가운데 병마용 왼손 엄지손가락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박물관은 지난 1월8일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미 연방수사국(FBI)에 신고했다. FBI는 며칠뒤 범인 마이클 로하나(24)를 체포했다.

로하나는 병마용과 셀카를 찍는 척하면서 엄지손가락을 부러뜨려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데에는 박물관 측의 허술한 관리 책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됐다. 당시 박물관은 관람객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전시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하면서 유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 중국 측 담당 기관인 산시성문물교류센터 측은 지금까지 40여년간 260여차례 해외 전시를 진행했지만 병마용이 훼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지난달 18일 필라델피아시는 의회 결의를 통해 중국 측에 서면 사과문을 전달했다.

美 중부 때아닌 봄 폭풍설로 3명 사망

미국의 멕시코만 지역에서 5대호 지역에 이르는 광활한 중부지역에 때아닌 봄 혹한과 폭풍설이 강타했다. 강풍과 얼음, 우박과 눈으로 인해 도로교통이 마비되고 항공편 취소가 잇따르면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 중에는 자고 있던 루이지애나주의 두 살 여아도 포함되었다.

중북부 지역인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국제공항에서는 14일 하루 동안 2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었다. 사우스 다코타주 최대 도시인 슈폴스에서는 폭풍설로 인해 눈과 얼음으로 도로가 미끄러워 이틀째 연속해서 통행이 금지되고 있다.

미네소타 트윈스 프로야구팀의 홈 구장도 눈에 덮여 14일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연기되었다. 양키스와 타이거스도 14일 디트로이트에서 예정돼 있던 경기를 연기했다.

미네소타주는 남서부 고속도로 대부분을 당국이 폐쇄한 상태이며 그 외의 남부 절반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운전을 삼가라는 경고가 내려져 있다. 기상청은 이 지역에 23~38cm의 폭설을 예보하고 특히 15일에는 강풍 경보를 내린 상태이다.

하지만 독일 아헨에서 주말 관광을 왔다는 니코 하일리히만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곳 기후의 특징인 눈과 추위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다. 주말에만 있을 것이어서 오히려 잘 되었다"며 즐거워했다.

이번 눈 폭풍은 15일까지 계속되면서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간주를 강타하고 뉴욕주와 뉴잉글랜드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소말리아 축구장서 폭탄테러 5명 사망

소말리아 남부의 항구도시 바라웨의 한 축구장에서 12일 저녁(현지시간) 폭탄이 폭발해 경기를 보던 관중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고 소말리아 경찰이 밝혔다.

알카에다와 연계된 알샤바브는 즉각 이번 폭발이 자신들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목격자들은 폭탄이 운동장 흙바닥에 매설돼 있었으며 시합 도중 폭발했다고 말했다.

경찰관 압디리작 아흐메드는 부상한 8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 위중한 상태라고 말했다.

바라웨는 알샤바브의 주요 거점이었다. 하지만 소말리아 정부군과 아프리카연합(AU)군이 바라웨를 점령한 후 알샤바브 세력을 몰아냈었다. 알샤바브는 스포츠 활동을 금지시켰었고 여전히 인근 로어 샤벨레 지역을 근거로 바라웨에 대한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알샤바브는 지난해 10월에는 트럭 폭탄 테러로 512명의 사망자를 내기도 했었다. 이는 소말리아 최악의 테러였다.

소말리아는 오래 동안 알샤바브와의 전투를 계속해 오고 있다. 알샤바브는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극단주의 무장세력으로 꼽히고 있다.